

7·8세기 동아시아 2탑식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김 상 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 언 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2탑식가람, 쌍탑, 법화경, 밀교, 7·8세기동아시아불교건축

1. 서론

한국에서 불교가 매우 융성하여 호국적인 성격이 매우 짙게 되는 7~8세기에는 동아시아는 불교의 전성기로 세나라가 모두 불교의 발전에 힘을 쏟을 때였다. 정치적 상황도 중국은 진(秦)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시기였고, 한국은 오랫동안 지속되던 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또한 일본은 고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대륙문화 유입에 최선을 다한 시기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670년은 매우 중요한 때이다. 신라가 당의 한반도 지배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에 일본도 이 전쟁을 유의 주시하며 두 나라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외교적 방향을 모색하려 했던 시기였다. 나·당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람배치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금당이 중심이 된 영역에 금당 앞에 2기의 탑이 조성되는 배치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의 가람배치는 중국에서는 그 흔적이 매우 미비하게 나타난다. 문헌과 석굴 등 회화나 조각작품에서 그 흔적이 보이지만 가람의 배치와 그 유적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 680년 이후에 2탑식의 가람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까지 그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판단은

동아시아에서의 2탑식가람의 생성에 대한 의문점을 항시 간직하게 하였고, 7세기 통일신라시기의 가람배치를 주도했던 2탑식가람과 일본의 가람배치와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의 재부흥시기인 7·8세기의 2탑식가람의 전개에 따른 생성과 원인을 찾기 위함이다. 그 방법으로는 7·8세기의 당, 신라, 일본의 삼국간의 정치적 정세와 불교의 동향을 그 건축교류의 흐름의 열쇠로 삼아 가람배치와 나라간의 교류를 대비함으로써 그 전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알고자 함이다. 본 논문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7·8세기의 당·신라·일본의 가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불교의 흐름을 위해 중국의 당대이전 남북조시기와 일본 고대의 불교 및 가람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7, 8세기의 동아시아와 불교

2-1. 동아시아의 정치적 배경과 교류

(1) 당과 신라

670년을 정점으로 한반도는 통일신라, 즉 후신라가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당과 연합국이 되어 660년 백제의 멸망에 이어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하게 한

	658	662	666	670	674	678	682	686	690	694	698	702	706	710	714	718
당(唐)				高宗			高宗			武則天			中宗	睿宗	玄宗	
견당사	1 1	1 1	1 1	1 1	2		1		1 1			1			1	
신라(新羅)		1 2	1	1 1 1 1	2 2 2	1	2		1			1	2 2 3 1	1 1 1 2 2 2	1 2 1	
견제사				1	1 1 3	2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견당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본(日本)	齊明		天智			天武				持統	文武	大寶	慶雲		和銅	養老
견당사	1		1	1 1								1				1
견제사			1 1	1 1												
당(唐)				高宗			高宗			武則天			中宗	睿宗	玄宗	

표1. 唐, 新羅, 日本의 三國간 遣使파견 현황표

다. 이때까지의 신라와 당의 관계는 하나의 목표로 연합국으로서 매우 친밀하고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당은 한반도에 도독부(都督府)를 두어 한반도를 통치하려 하였고 웅진도독부의 도총관을 백제의 왕자로 삼아 신라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670년 고구려 유민을 독려하여 당에 선제공격을 하였고,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당의 해군을 명량의 신인기법으로 황해에서 격침시킨다.¹⁾ 그 후 671년 당의 보급선을 황해도에서 격침하여 본격적인 나·당전쟁이 시작된다. 나·당전쟁의 결과로는 두 가지의 견해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신라의 자주성에 의한 통일과 더불어 한민족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단결에 의한 공동대처에 의하여 당을 대항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당을 견제하는 세력이 신라 이외에 토번(吐蕃)²⁾이 있어 당의 국제무역에 가장 중요한 교통로인 실크로드를 토번의 장악에 따른 군사적 여유의 제약에 따라 나당전쟁에 있어 신라의 승리보다는 휴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견해³⁾도 있다. 이러한 두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을지라도, 675년 매초성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676년 나당전쟁을 종결하게 된다. 이에

당은 백제와 고구려땅에 있었던 도독부를 당의 영토로 옮기게 되어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를 신라의 영역으로 두게 되었다. 문무왕은 대당전쟁을 일단 승리하고 난 이후에 통일전쟁시기 이전부터 계속 보낸 견당사(遣唐使)를 675년 나당전쟁의 유감에 대한 사절로 단 한차례 보낸 이후, 문무왕이 작고한 681년 7월까지 견당사를 보낸 흔적은 아무 곳에도 없다. 이는 신라가 나당의 전쟁을 외교로 풀기 위하여 견당사를 보내었지만 당은 계속하여 신라를 침공하였고, 이에 매초성전투를 근간으로 신라가 대당전쟁의 우위에 있어, 그 이후에는 견당사를 보내지 않았음을 말한다. 또한 문무왕의 다음 왕인 신문왕(681~692)과 효소왕(692~702)도 단 1회의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과 신라의 외교관계가 소원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덕왕(702~737)에 이르러서는 재위 36년간 46회의 견당사를 파견하여 다시금 당과의 외교적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당에 대한 외교내용은 의례(儀禮)적 활동과 조공(朝貢)외교로서 영토문제와 재당신라인(在唐新羅人)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교역을 중점으로 행하여지게 된다.⁴⁾ 이후 당과의 관계는 신라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견당사등의 외교적 활용을 통하여 친밀하게 이루어진다.

1)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 와 三國遺事 卷五 神呪 第六 明朝神印條 참조
 2) 7세기 초에서 9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티베트왕국 및 티베트인(人)에 대한 당(唐)·송(宋)나라 때의 호칭.
 3) 서영교, 羅唐戰爭史研究, 동국대학교 사학(史學) 박론, 2000, pp. v ~ xii

4) 권덕영, 新羅遣唐使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歷史)박론, 1995, pp. 27~56 참조

(2) 신라와 일본

삼국유사에서 일본의 출현은 신라 건국초기부터 일본의 침입에 대한 기사로부터 시작된다. 신라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왜적으로 신라를 괴롭히는 나라로 인식되었고, 또한 일본이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면서 더욱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된다. 일본의 신라에 대한 인식 또한 좋지 않았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타난 신라는 강한 적대감으로 나타나 있고, 신라가 백제를 침공했을 당시(7세기 중반) 일본에서 지원군을 보내어 신라를 견제할 만큼 신라와의 관계는 적대국의 관계였다. 그러나 점차 신라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647년 김춘추의 왜(倭)방문의 기사에 대한 해석을 보면 알 수 있다.⁵⁾ 이러한 김춘추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대당의 결전을 준비할 시에 다시 일본과의 외교적 접촉을 시작한다. 668년에서 700년까지 신라는 25회에 걸쳐 사신을 보내어 국교정상화와 외교적 동맹을 맺으려하였다.⁶⁾ 이후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급진전하게 된다. 여기에는 당과 신라의 관계가 많이 작용하게 된다. 당이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도독부를 한반도와 일본에 두게 됨으로 동아시아를 모두 당의 영역권에 두려고 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신라는 당

을 견제하기 위해 먼저 선제공격을 하고 공격에 앞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신라의 후방에 대한 걱정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그러한 증거로는 선진문물과 국력이 강한 신라가 일본에게 조공을 했다는 『일본서기』의 관계기사는 일본 왕에게 신라의 마음을 표시한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일본의 권력층에 포진한 백제계 관료과 대항할 수 있는 신라계의 정치세력의 등장 의 포석⁷⁾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왕에 대한 공세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친 신라계인 천무천황(天武天皇)시기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천무천황은 당과의 외교적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신라와의 일방적인 외교로서 대외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한 신라와 일본의 일방적 외교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의 국력상승으로 인한 일본의 친 신라정책과 두 번째로는 일본내에서의 백제계와 신라계의 내정싸움에 친신라계가 승리를 함으로 신라일변도의 정책을 쓴 경우,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당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고 간헐적 전투가 일어남으로 불안을 느낀 신라가 배후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공 등 일본의 환심을 얻어 일본을 친신라로 만든 경우이다. 신라와의 밀접한 관계는 720년에 들어서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책으로서 알 수 있다. 이는 724년에서 732년까지 양국간에 사신이 왕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한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정세의 문제로 기인하는데, 발해에서 무왕의 등극(720년)과 신라와 발해의 군사적 긴장, 일본의 율령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당과의 외교 수복, 발해와 일본의 외교관계성립(727년)⁸⁾ 등으로 알 수 있다. 730년대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더욱 악화가 되어 신라는 당과의 외교에만 집중하게 되고 일본은 당과 발해로 그 외교의 방향을 돌리게 된다.⁹⁾ 이러한 외교적 변

5) 윤순의, 新羅 統一戰爭期の對倭關係, 충북대 역사교육 석론, pp. 8~13

6)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들에 의한 분석은 매우 상반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이기백과 신형식의 경우에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의 역사왜곡에 언급하면서 신라가 일에 조공한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반대로 한국의 학자 중에는 노태돈, 윤선대, 서영교 등은 당과의 전쟁중에 신라의 배후에 있는 일본의 위협에 대한 저자세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鈴木靖民 등 많은 일본학자들은 일본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신라의 조공사례를 들며 신라가 일본의 종속국임을 말하고 있다. 그중 山尾幸久와 같은 몇몇의 일본사학자들은 일본의 기록 있지만 한국의 기록이 없음을 말하면서 일본의 일방적 서술만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견해도 나타내곤 하였다. 결론으로 양국이 다른 시각차를 가지고 해석을 하였지만 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라와 일본이 친밀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외교 뿐만 아니라 불교와 문화 등 여러 방면의 교류가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영교의 앞의 논문 pp. 137~139 참조

7) 최재석, 古代韓日關係와 日本書紀, 일지사, 2001, pp. 216~224

8) 박진숙, 渤海 文王代の對日本外交, 충남대학교 한국사 석론, 1995, p. 4

9) 김선숙, 8世紀 前後 新羅·日本の 政治外交關係,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 석론, 1995, pp. 41~52

화는 주로 일본의 외교방향에 따라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일본은 당시의 정세에 의해 그 외교적 접근을 달리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당과 일본

7세기 당과 일본의 관계는 한반도의 정세에 따라 그 방향이 변하곤 하였다. 특히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백제의 영향은 일본과 신라, 일본과 당의 외교적 접촉이 매우 어렵게 하였다. 그런 와중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국이 백제를 멸하자 일본은 일본에 있었던 백제의 왕자 부여풍으로 구원병을 보내게 되었고, 663년 나당의 연합군에게 백강전투에서 패하자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그 입지가 매우 약하게 되었다. 백강의 전투는 후에 일본의 본토에 도독부¹⁰⁾를 두어 일본을 간섭하기에 이른다. 당의 이러한 간섭은 일본에서 672년의 임신의 전쟁¹¹⁾과 신라가 당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676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에서 당의 간섭은 사라지고 신라와의 일방적 외교를 시작하였다. 표1에서와 같이 670년에서 720년대까지 1차례를 제외하고는 당나라와 사신의 교류는 없기 때문에 50년 동안 실질적인 외교단절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시기의 일본은 신라와의 교류를 통하여 대륙의 문화를 흡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없었음은 신라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였다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700년 초의 1차례의 건당사의 목적이 일본의 국호를 당에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8세기 초의 일본의 울령체제도 당의 영향력보다는 신라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 50년간의 소원했던 당과 일본의 관계는 신라 성덕왕의 외교방향에 따라 일본도 신라와의 관계보다는 당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다. 그 후로는 신라를 경유하는 항로가 아닌 남중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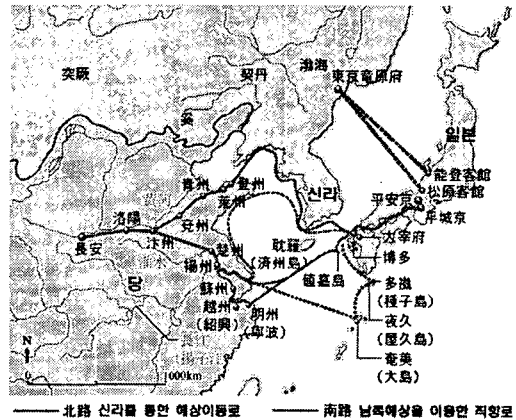


그림1. 일본의 古代 對唐 交易 海上路

하여 직접 당과 교역하게 된다. 그러나 9세기 중엽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엔닌(圓仁)의 일기를 보면 당으로의 항로중에 남쪽의 항로를 이용하여 당으로 갔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건당선의 파손 등의 기사가 있는데, 9세기에도 당으로의 항해술 및 조선술이 좋지 못하여 출국항해를 신라인이 도왔고, 귀국선을 신라선에 의하여 돌아왔다는 점¹²⁾등은 그 당시 신라의 해상력 장악에 대한 하나의 기술을 보여준다.¹³⁾ 이러한 당과의 일본과의 항해에 대한 어려움은 당과 일본의 교역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신라가 존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2-2. 7, 8세기 동아시아 불교와 구법승

7세기 이후의 동아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한 정국을 유지한다. 그런 와중에 불교는 화엄종의 발생 등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전의 불교는 주로 인도승의 한반도 포교를 통하여 불교의 발전을 보였지만 7세기 이후에 한반도의 삼국은 중국에 구법승을 보내 중국불교의 도입을 시도한다. 삼국 통일의 전·후기 신라는 당과의 외교관계로 인하여 당에 많은 입당구법승(入唐求法僧)을 보내어 선진 불교의 도입에

10) 일본에 두는 도독부는 筑紫都督府로 664~677년까지로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당시 당의 사신은 백제의 熊津都督府에서 筑紫都督府로 보내어 졌음을 알 수 있고, 이에 筑紫都督府는 熊津都督府의 영향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1) 天智天皇이 죽고 난 후의 天武天皇이 정권을 잡기 위해 일으킨 전쟁

12) 엔닌(圓仁), 김문경譯,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중심, 2001, pp. 10~12

13) 김용길, 韓國古代的 海上交通路와 貿易活動研究, 경희대학교 석론, 1988, pp. 4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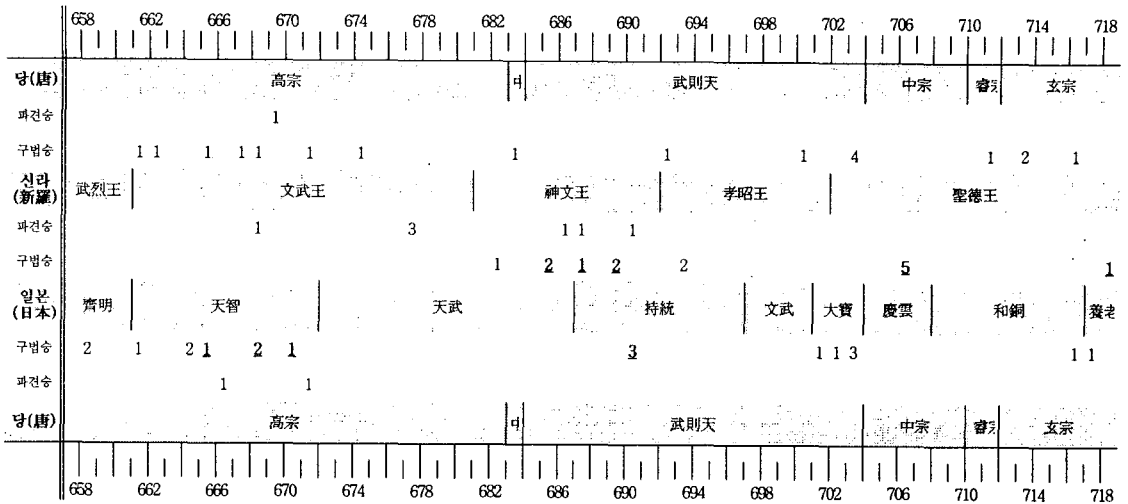


표2. 唐, 新羅, 日本의 三國간 구법승(求法僧) 파견 현황표

힘쓰게 된다. 이러한 구법승은 당의 불교뿐만이 아니라 당의 선진 문물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건축에서도 당의 선진건축의 도입을 가져오게 된다.¹⁴⁾ 그리고 당에 간 신라의 구법승들은 친축국 즉 인도로의 구법활동을 하여 아시아 전반에 걸친 문화의 교류도 시도하게 된다. 일본도 7세기 중반 축자도독부(筑紫都督府)의 설치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중국문물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일본 역시 중국과 한반도에 유학승을 보내어 구법을 하였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와 가람의 건립은 주로 당과 신라의 구법승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신라와의 관계인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그림1에서와 같이 당과 일본과의 교류는 육지와 바다로 나뉘어 있지만 신라의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하고 있고, 신라 또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 의하여 당과 일본과의 교류를 주선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7세기말과 8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당까지의 남쪽 해상로의 개발이 어려웠다는 점등은 일본으로 하여금 불교 및 선진문물의 도입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 사실은 당과 신라, 일본의 많은 기록에서 그 흔적이 나타난다. 일본

의 사신과 구법승들은 신라를 통한 당의 산동반도로의 진입이 그 해상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¹⁵⁾ 특히 신라가 당과의 외교적 단절을 하고 있을 시기의 일본 또한 당과의 외교적 관계가 매우 드물었음은 이미 2-1절에서 언급하였던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교활동을 위한 사신과 구법승과의 관계이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미 신라는 당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게 되었고, 견당사의 파견과 함께 구법승을 파견하여 당의 불교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통일 이전의 대표적 구법승으로 원광, 지명, 암함, 자장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입당구법승들은 사신이 출국을 하거나 귀국시 동행하였음¹⁶⁾을 볼 때 사신과 구법승은 항상 동행하여 같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당시 항로를 이용하여 당과 신라가 교역을 할때는 사

15) 윤순의, 新羅 統一戰爭期の 對倭關係, 충북대 역사교육 석론, pp. 22~24를 참고하면 7세기 중반에서 말기까지의 일본의 견당사의 6차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동해상로는 보면 1차례의 해상로 遡고 나머지는 북로(北路) 즉 신라의 남해안에서 서해안을 따라 해주(海州)에서 산동반도의 등주(登州)에 이르는 항로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1개의 노선은 남로(南路)로 일본의 큐슈 하카타만(지금의 후쿠오카)에서 동지나해로 향하여 중국의 남경 즉 양주에 이르는 항로인데, 남로로 행한 견당사의 경우 조난을 많이 당하였고 문헌에는 나타나있다.

16) 여성구, 신라 중대의 입당구법승 연구, 국민대학교 국사학 박론, 1997, pp. 23~24

14) 黃有福, 陳景富, 韓-中佛教文化交流史, 도서출판 까치, 1995

무역(私貿易)이 금지되고 나라에서 허락할 때에 비로소 출국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불교와 문물의 수입은 사신과 입당구법승들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중반의 당과의 외교적 단절은 구법승에게도 당의 출입이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덕왕때의 외교적 회복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입당구법승이 늘어나게 되었고, 장보고와 같은 사무역상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신과 동행뿐만 아니라 무역상선을 따라 입당한 경우가 많아졌다.¹⁷⁾ 7세기의 일본은 입당구법승보다 입신라구법승¹⁸⁾ 즉 신라학문승이 더 많이 있음을 표 2를 통하여 알 수 있다.¹⁹⁾ 이는 670년대 이후의 약 50년 동안 동아시아는 신라와 일본의 독자적 외교관계로 인하여 구법을 위한 학문승은 그 당시 구법승들이 견사와 같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당까지 가지 못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신라의 불교 또한 이때의 불교교학이 가장 왕성한 발전을 하고 있었음으로 일본의 신라에 대한 학문승의 파견은 당으로의 구법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당초제사를 지은 당승(唐僧) 감진(鑑眞)이 일본으로 간 8세기 중반까지 신라의 유학승이 일본의 승관(僧官)을 차지했다는 점²⁰⁾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라로의 구법활동은 8세기 중반 당과의 외교가 회복되어 입당구법(入唐求法)을 시행하게 되었고, 9세기 이후 사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공식적인 견당선(遣唐船)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

3. 2탑식가람의 전개과정

3-1. 중국에서의 2탑식가람의 전개

(1) 수대 이전의 불사건축

중국의 불사건축의 흔적은 한말(漢末)에서부터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한(東漢) 영평 10년(서기 67년)에 세워진 낙양의 백마사(白馬寺)가 최초의 가람이라는 기록과 같은 시기에 세워진 부도사(浮圖祠)²²⁾가 있으나 그 흔적은 없다. 2세기말 책옹이 서주에 부도사(浮屠祠)를 지었고, 중루(重樓)에 위에 금반(金盤)을 올린 중국의 최초의 누각식 목탑이라고 전해진다.²³⁾ 남북조시대의 북위의 수도 낙양에는 천여개의 절이 존재하여 불사가 매우 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²⁴⁾ 특히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는 북위의 호령태후가 지은 영녕사에 9층목탑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탑은 목탑의 한계점인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523년 하남의 승악사탑으로 전(벽돌)으로 만든 밀첨식탑이다. 문헌에 의하면 불교도입초기의 가람은 인도식의 가람배치가 주가 되었으나 고대 즉 수나라의 통일이전의 가람의 모습은 인도의 스투파형식과 중국의 예제에 의한 궁전형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마당의 중심에 탑을 만들고, 그 뒤에 불전을 만든 형식이 주가 되었다. 바로 인도와 중국의 배치가 혼합된 배치형식이 나타날때의 모습이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영녕사의 탑과 불전의 모습이다. 북위의 불교의 발전은 불교건축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는 돈황(敦煌), 운강(雲岡), 용문(龍門)석굴 등 매우 중요한 불교유적을 탄생하게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돈황석굴의 경우 북위를 거쳐 수, 당, 오대, 송 등 여러 시대를 걸친 건축유적의 모습을 벽화로 보여주고 있다. 돈황에서 북위시대의 사찰건축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수대이후의 가람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운강의 경우에는 동굴의 구조와 또한 북위시대의 조각을 통하여 건축과 탑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17) 여성구, 앞의 논문, pp. 25~27

18) 일본에서는 견신라승(遣新羅僧)이라고도 한다.

19) 田村圓澄, 新羅と飛鳥・白鳳の佛教文化 - 半跏思惟像と聖德太子信仰, 吉川弘文館, 1975, pp. 91~93을 보면 665년에서 707년까지의 외국파견 학문승을 보면 총 27명중 대당학문승의 경우 12명이요, 신라학문승의 경우는 15명이 이른다.

20) 石田瑞麿 이영자 譯, 日本佛教史, 민족사, 1988, P. 64

21) 엔진, 김문경譯, 입당구법승행기, 도서출판 중심, 2001

22) 부도(浮圖)와 부도(浮屠), 탑(塔)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서 중국식의 누각식 탑을 부도(浮圖)라 표현한 점으로 보아 중국식 목탑을 부도(浮圖)라 하고 일반적 의미의 부도(浮屠)는 고승들의 사리를 봉안한 소탑을 의미한다. 초기문헌에서의 탑(塔)은 인도에서의 스투파에서 발전한 복발형식의 탑형식을 의미할 수 있다.

23)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0, p. 83

24) 楊銜之, 洛陽伽藍記, 上海古籍出版社, 1993, p. 5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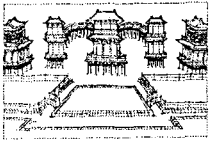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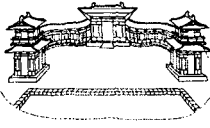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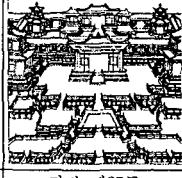
일전이루식배치형식	“凹”형배치형식		원락식배치형식	
수(隨)	초당(初唐)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晚唐)
				
수대 제423굴 굴정미록경변적불사	초당 제206굴 북벽아미타경변적불사	성당 제225굴 남벽아미타경변적불사	중당 제231굴 북벽미륵경변적불사	만당 제85굴 북벽약사경변적불사

표3. 돈황석굴에 나타난 시대별 건축의 특성분류

(2) 수, 당의 불사건축

표3은 소묵(蕭默)이 지은 『敦煌建築研究』의 돈황석굴(막고굴)에서 표현된 불사건축의 시대적 유형분류를 한 것이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불전앞에 높은 2기의 경루(經樓)가 대칭하게 위치하는 “일전이루(一殿二樓)”형식의 배치가 일반화된다. 이러한 일전이루의 배치는 당나라의 성당(盛唐)²⁵⁾ 시기에는 “요(凹)”형 배치평면으로 발전하고, 만당(晚唐)의 시기에는 “원락식(院落式)”배치로²⁶⁾ 발전²⁷⁾하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불전과 탑의 관계에 있다. 하나의 탑을 마당의 중심에 배치하고 뒤에 불전을 배치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가람의 배치형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낙양가람기에 의한 북위시대의 가람들의 불전과 탑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가람은 약 50곳으로 탑이 존재하는 가람은 15곳이다. 그중 13개의 탑은 새로 지은 가람에 있었고, 나머지 2개의 탑은 저택을 고쳐지어 사원을 만든 가람이다.²⁸⁾ 이는 북위의 상당수 가람이 개인 주택을 불사로 고쳐서 가람으로 사용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합원식 주택이 가람이 될 경우 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당 이후에는 사리탑신 양보다는 불교교리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교리를

강의하고 선전하는 불전 및 강당의 필요에 의해 더욱 더 탑을 조영하지 않거나 탑을 짓더라도 또 다른 별원(탑원)을 짓거나 불전 옆, 혹은 뒤에 탑을 조성하였다.

(3) 남북조와 수, 당의 2탑식가람

중국의 건축사가(建築史家)인 유둔정(劉敦楨)은 중국고대건축사에서 “쌍탑가람의 흔적이 동진에서 처음 보이고 있고, 당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²⁹⁾고 하면서 각주에 당대의 관리(官吏)인 장언원(張彦遠)의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의 내용을 그 근거로 하였다. 또한 당의 불사건축의 배치의 모습이 3가지로 단탑식과 쌍탑식, 그리고 탑원(塔院)형식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쌍탑가람의 최초의 내용은 『歷代名畫記 卷五 晉』에서 동진시대(317~420년)의 정치가이면서 그 시대의 뛰어난 화가이며 서예가인 왕이(王廙³⁰⁾)를 말하면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무창에 있는 창락사(昌樂寺)의 동탑과 서탑³¹⁾의 불화를 그려달라는

25) 唐代(581~907)의 시대구분 : 初唐(618~690), 盛唐(690~712), 中唐(712~859), 晚唐(860~907)

26) 蕭默, 敦煌建築研究-佛寺, 文物出版社, 1989, pp. 61~92

27) 유둔정의 중국고대건축사에서는 이러한 원락식 건축을 전당, 문, 회랑 등이 정원을 조성하게 되는 “단원(單元)적 조군형식(組群形式)”이라하였다. 이는 숙목의 원락식 배치형식과 같은 배치의 모습을 보인다.

28) 소묵, 앞의 책, 佛寺-隨代佛寺的一殿二樓布局, p. 63~64

29) 유둔정, 앞의 책, p. 83 각주 147. (唐) 張彦遠, 《歷代名畫記》卷5, 晉, 王, 廙 (人民美術出版社, 1963年印本)

상기책의 번역판인 유둔정, 정옥근외2인譯,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1995년, p.158 참조

30) 왕이(王廙, 276~322)는 동진 초기의 대정치가인 왕도(王導)의 동생이고 원제(元帝)의 처남이다. 그는 서화(書畫)에 능하고, 무예도 뛰어났으며, 음악또한 조예가 깊다고 『진서(晉書)』에 나와있다.

31) 작자는 창락사(昌樂寺)의 유래는 찾을 수 없지만 역대기에서 나오는 불탑으로 최고라 하면서 동탑은 사상(謝尚, 309~358년)이, 서탑은 대연(戴淵=戴若思, 269~322년)이 공양하여 조성하였다고 진서(晉書 七六)에는 나와있다. 이 두 사람이 왕이(王廙)에게 부탁하여 탑의 그림을 청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사상과 대연의 부탁이 두 사람이 동시에 탑을 조성하여 왕이에게 부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부탁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³²⁾”라는 표현이다. 이러한 동탑과 서탑의 표현은 기존의 단탑(혹은 일탑)과는 다른 표현이다. 유돈정은 바로 이러한 문헌적 표현을 바탕으로 동진시대의 쌍탑가람을 주장하였다. 역대명화기에서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쌍탑의 표현은 673년 건립의 천복사(千福寺)에 동탑원(東塔院)과 서탑원(西塔院)이 있고, 흥당사(興唐寺)에 동탑원(東塔院)이, 보응사(宝应寺)에 서탑원(西塔院)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³³⁾ 그러나 이러한 당대(唐代) 탑원(塔院)의 표현은 동진의 동, 서탑의 개념과 같이 놓고 설명되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같은 동서의 탑을 기술함에 있어, 창락사의 경우와 천복사를 비롯한 원락식 가람에서, 탑과 탑원에 대한 표기가 다르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탑과 탑원의 표기문제는 2탑식가람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탑식 기원의 또 다른 유적인 운강과 돈황은 남북조 시대와 수, 당 그리고 오대와 송대에 이르는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특히 운강석굴(雲岡石窟)은 북위때의 석굴로 북위건축의 모습을 조각으로 알 수 있으며, 돈황석굴(敦煌石窟)에서는 수(隋)와 당(唐), 그리고 송대(宋代)에 이르는 건축의 모습을 그림으로 알 수 있다. 운강석굴에서의 탑의 표현은 무탑에서 일탑, 쌍탑, 그리고 3기 이상의 탑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쌍탑의 표현은 운강석굴의 초기석굴³⁴⁾로 알려진 제17굴(표4)에서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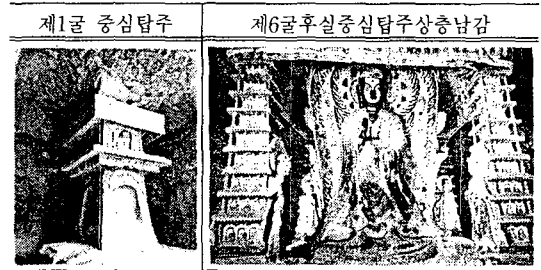


표4. 운강 제1굴과 6굴에 나타난 탑주(塔柱)표현으로 이루어진 탑이 중앙불상의 양옆으로 좌우 각 1기의 전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탑의 모습의 탑표현은 담요5굴 이후에 지어진 나머지 굴에서 주로 불상위의 천개(天蓋)를 받치고 있거나 천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인 탑주(塔柱)로 나타나고 있다.(표4) 그러나 이러한 탑주의 모습 중에 주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상 양옆에 위치한 탑의 조각을 들 수 있다. 특히 제2굴동벽의 불탑조각, 제5굴 후실 남벽의 불탑조각, 제6굴 남벽과 동벽의 불탑조각, 제11굴의 동벽상층의 불상 옆 불탑조각은 다른 불상주위를 받치고 있는 탑주의 모습과 다른 불탑으로 2탑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5) 탑주에서는 각 층의 최상부에 양화(仰花)로 상부의 도리나 보, 혹은 천개를 받치고 있지만, 여기서 보이는 탑의 모습은 상륜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탑주와는 다르게 구분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는 북위시대의 2탑식가람이 조영되지 않았다³⁵⁾는 일반적인 통설에도 불구하고 북위시대의 대표적 석굴인 운강에서의 2탑식 표현은 2탑식가람의 조영에 있어 동진에 이은 또 하나의 2탑식가람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운강석굴의 가람은 돈황과 다르게 조각에 의한 2차원적인 표현수법으로 인하여 2개의 탑이 하나의 원락안에 동시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원락식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탑주와 다르게 뚜렷한 불탑의 표현은 설령 북위때의 2탑식가람의 조영이 없었다 하더라도 2탑

대연과 왕이가 부고한 322년에는 사상은 13세로 탑을 공양하여 짓기에 나이가 너무 어렸다고 볼 수 있고, 두 사람이 무장이었다는 점은 더욱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추측하면 대연이 서탑이 먼저 조성하여 왕이가 벽화를 그리고, 후에 사상이 서탑의 반대편에 동탑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즉 창락사의 동탑과 서탑은 다른 시기에 조성된 2탑식가람이다.

32) 張彥遠, 長廣敏雄 譯, 歷代名畫記1, 동양문고305, 평범사, 1989, pp. 310~315 (권5, 진(晉))

33) 한정희, 韓國 古代 雙塔의 研究, 홍익대학교 미술사 석론, 1981, p.10

34) 북위(北魏)의 역사서 《위서(魏書)》의 《석로지(釋老志)》에 따르면, 사문통(沙門統:종교장관) 담요(曇曜)가 당시 문성제(文成帝)에게 석굴 조영을 주청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담요 오굴(五窟)'이라고 불리는 제16동에서 제20동까지가 이때에 만들어진 석굴로, 460년대 초에 조영된 것이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35) 앞의 낙양가람기의 기사에서처럼 북위의 수도 낙양에는 담요의 가람은 존재하였어도 2탑식의 가람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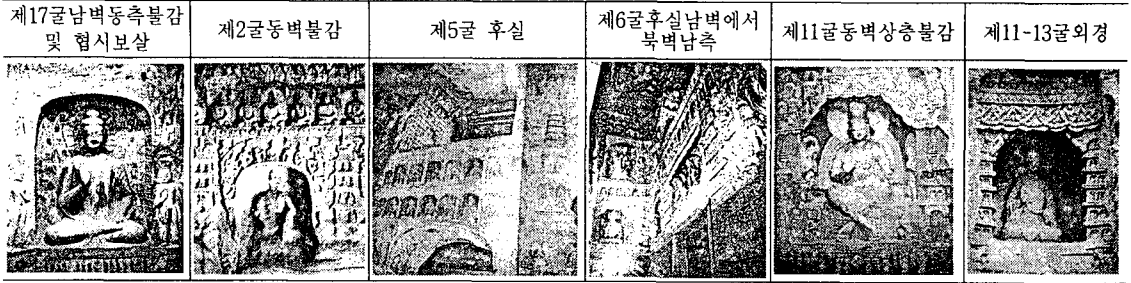


표5. 운강석굴에서 표현된 2탑의 사례

식 조영의 사상적 배경과 조탑(造塔)의지는 어느 정도 발생되었을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돈황은 그림에 의해서 나타낸 건축도로서 불사(佛寺)의 배치를 알 수 있다. 운강이 조각으로 입면적 표현을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돈황은 1소점 투시도와 같은 기법으로 불화를 그렸기 때문에 가람의 전반적인 배치를 알 수 있다. 운강과 같이 돈황 또한 부처의 사상에 따른 변상에 대한 표현을 한 작품으로 그 당시 유행하였고 연구된 불국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불화나 조각에 표현된 건축 묘사나 배치 기법은 그 당시의 건축의 기법이나 배치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국(佛國)을 표현했다라도 그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표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그 당시의 발굴된 유적이나 문헌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돈황석굴의 경우에는 북위시대의 불사건축(佛寺建築)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수대(隋代) 제 423굴 굴정미륵경변적불사(窟頂彌勒經變的佛寺)에서 불전 뒤로 2기의 루(樓)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표3) 또한 당대(唐代)의 그림에서는 불전 앞에 2기의 루(樓)가 있어 마치 2탑식가람의 배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림으로 모두 초당과 성당시기에 이루어진 그림이다. 이 그림의 특징은 불전과 앞의 2기의 루에는 회랑이 연결되어 있어 중국학자 소묵(蕭默)은 그러한 형식을 요(凹)자형 형식이라 하였다. 이미 서술한 바(표3)와 같이 성당이후의 불사 모습은 거의 원락식(院落式) 배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전 앞의 2기의 루의 배치모습이다. 이러한 2기의 루의 배치는 초당 및 성당시기의 일반적인 가람배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돈황 이외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초당시기의 도선³⁷⁾이 그린 《계단도경(戒壇圖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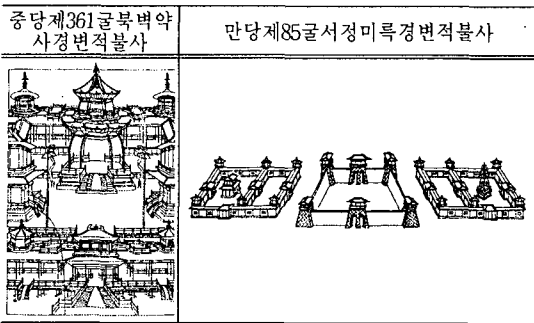


표6. 돈황석굴의 중당이후 원락식 가람의 탑표현

36) 운강석굴의 2탑식 표현에 있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山本榮吾는 「双塔式伽藍配置の發祥と傳播」라는 논문에서 운강석굴에서 불상의 양쪽에 위치한 불탑은 탑주 혹은 비운 공간을 메꾸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2탑식 보다는 탑주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한정희(홍대 미술사학)는 「韓國古代雙塔의 研究」라는 논문에서 2탑식가람과의 개연성에 대하여 「법화경」과 중국의 대칭적 배치로서 궁극적 주장을 하였으며, 김상언(고대 건축학)은 「韓國 古代伽藍의 配置에 關한 研究」에서 한정희의 연구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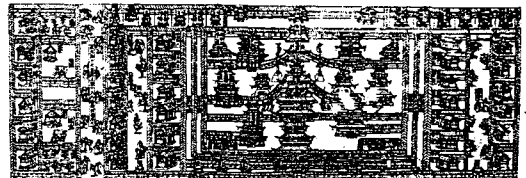


그림2. 도선(道宣)의 계단도경(戒壇圖經)

37) 도선(道宣)은 초당(初唐)시기의 율종(律宗)고승이다. 일찍 현장과 함께 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참가하였으며 건봉3년(668년)에 세상을 떠났다. 계단도경(戒壇圖經)은 도선이 그린 그림으로 이상적인 불사(佛寺)의 모습을 묘사했다.

圖經)-그림3》을 보면 중문을 지나 불전에 이르는 정원 양쪽에 3층의 누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누각은 불전의 좌우에 5층으로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탑이 불전 뒤에 있다는 점이다.³⁸⁾ 북위로부터 초당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동안 불전앞에 탑1기가 위치하는 1탑1금당 형식의 배치가 바뀌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당대의 탑의 위치가 불전의 좌우의 옆에 혹은 후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줌³⁹⁾으로 원(院)중심의 가람배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돈황의 석굴의 불화처럼 불전 뒤에 탑이 위치하는 그림이 다수 나타난 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북위에서 당대에 이르는 시기에 2탑식가람이 현존하거나 발굴되어 나타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2탑식가람의 전개과정을 입증하기 어렵다.⁴⁰⁾ 실제적으로 쌍탑가람이 중국에 나타나는 경우는 현재 영은사(靈隱寺)가 가장 앞선 가람인데, 영은사에는 2기의 쌍탑이 현존하고 있고, 이 쌍탑은 오대(五代:907~979)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 또 다른 대표적 쌍탑으로 소주의 나한원 쌍탑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송대(宋代:960~1277)의 것으로 목탑으로 지어진 2탑식가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 통일신라의 2탑식가람의 전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이전의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를 받아들여 발전하였으나 이미 통일되기 이전부터 입당구법승들에 의하여 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불교문물에 대한 교류가 있었다. 대표적 구법승으로는 원광과 자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신라왕족과 깊은 연관을 맺었던 귀족 출신으로 황룡사의 건립에도 연관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고구려, 백제, 일본으로 둘러싸인 신라는 언제나 전쟁에 대한 대비와 호국을 위한 불교로서 발전하게 된다. 특히 통일을 하고 당과의 전쟁을 시작한 670년을 전후로 하여 그러한 양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호국에 대한 종교의 의지는 곧 호국불교로서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특히 신라의 가장 대표적 호국사찰인 사천왕사는 2탑식가람이라는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배치 형식으로 그 모습을 나타냈다. 635년에 당에서 귀국한 밀교(密敎)고승인 명랑법사에 의하여 지어진 사천왕사는 주술의 힘⁴²⁾에 의하여 당에 대항하여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⁴³⁾고 전해지는 가람이다. 침입해오는 적을 막아주는 가람로서의 호국사찰을 의미한다. 이때의 배치는 금당앞에 2기의 목탑이 남북으로 대칭하여 서있고 금당 뒤로는 경루가 또한 2기로 남북으로 대칭하여 있는 배치구조이다. 이는 마치 밀교의 만다라의 배치기법과 같은 구조로 다른 2탑식의 가람들과는 다른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천왕사에 대응되는 가람인 망덕사 또한 2탑식가람으로 사천왕사의 경루가 원내(院內)에 위치한 것과는 달리 원외(院外)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신라시기의 또 다른 대표적인 가람으로는 감은사를 들 수 있는데, 사천왕사와 망덕사의 조영목적이 당에 대한 결전의지였다면, 감은사는 당과의 전쟁과정 중 일본의 배후침입에 대한 호국의지로서 그 목적이 사천왕사와 매우 흡사하다. 이 두 가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탑의 조영재료라 할 수 있는데, 사천왕사가 목조탑을 조성하였지만, 감은사는 석조탑을 조성하여 탑의

38) 蕭默, 敦煌建筑研究-佛寺, 文物出版社, 1989, pp. 63~64

39) 中国建築史編輯委員會, 田中 淡 訳, 中国建築の歴史, 平凡社, 1981, pp. 91~92

40) 앞에 언급한 일본의 학자 山本繁吾는 「双塔式伽藍配置の發祥と傳播」에서 동진에서 발생한 쌍탑가람은 후에 수대(隋代)의 612년에 건립된 「大業의 双塔」의 예를 들면서 당대(唐代)에는 중국의 쌍탑을 의상이 신라에 도입하여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조영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그러한 쌍탑가람의 형식은 일본의 백봉(白鳳)시대에 영향을 주어서 일본의 약사사(藥師寺)를 창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일본은 그 후 710년에 지어진 흥복사(興福寺)는 중국의 회랑에 탑을 두는 형식을 받아들여 조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회랑내의 쌍탑과 다른 회랑을 조영하여 그 안에 탑을 조성하는 형식을 갑류(甲類)와 을류(乙類)라 분류하였다. 즉 갑류는 신라의 사천왕사, 일본의 약사사를 말하고 을류는 동진에서 보인 창락사(昌樂寺)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쌍탑과 일본의 흥복사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41) 黃卓越 等, 中國佛教大觀, 哈爾濱出版社, 1995, p. 917

42) 신인비법(神印秘法) 즉 문두루(文豆婁-Mūdra)작법이라고도 하며 그 작법은 『灌頂經』 12권, 제7경 「佛設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의 작법에 의해서 시행된다.

43)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 와 三國遺事 卷五 神呪 第六 明朗神印條 참조

7세기중엽~8세기 초				8세기 중엽~8세기 말			9세기 이후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감은사지	천군리사지	고선사지	불국사	원원사지	보림사	실상사

표7. 통일신라의 가람의 시기별 배치변화와 2탑식가람

영구성을 추구하였다. 감은사의 배치는 망덕사와 같이 금당앞에 두기의 탑을 두었고 금당 좌우에 회랑을 둔 형식이다. 감은사의 가람배치는 8세기 가람배치의 원형이 되어 많은 수의 2탑식가람이 나타나게 된다. 8세기 초로 추정되는 천군리사지와 751년의 불국사, 758년의 갈항사지 등 약 1세기를 넘게 2탑식가람이 신라가람의 전형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2탑식의 배치가 넘쳐나던 시기에 단탑의 원락식 구조로 이루어진 고선사지는 불교사상의 다양성이 적용되어 나타난 배치라 볼 수 있다.⁴⁴⁾ 불국사 또한 중심불전은 2탑식 배치이지만 전체 배치는 여러개의 영역이 조합된 원락식 배치이다. 이는 8세기 중반부터는 신앙의 다양성이 두각되어 나타나는 시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배경중에는 8세기 중엽부터 신라의 당에 대한 외교노선의 변화도 하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⁵⁾ 2탑식가람의 변화는 불국사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즉 신라의 원내에 조성되는 2탑식가람과 당의 원락식 배치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형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가람의 조영목적이 나라의 안녕과 보국을 위한 호국사찰로서의 조영목적에서 개인적 성향을 가진 가람들의 출현이 나타난다.⁴⁶⁾

4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문운당, 1997, pp. 80~82

45) 8세기 초 성덕왕때부터 시작된 건당사의 수적 증가는 8세기 중엽 경덕왕때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7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당과의 외교단절은 8세기 초의 성덕왕대 때 시 외교적 접촉이 시도되었고 경덕왕대에 당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8세기 초반에 당과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고 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건당사의 수적 증가를 보인다. 이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소홀해지는 원인이 그 하나라 할 수 있다.

46) 건축뿐만이 아니라 석탑조각, 공예 등 여러 예술문화가 다양해지고 개인적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이는 신라의

탑에 조각을 하는 수법도 이시기에 나타난다. 그 대표적 가람으로 원원사(遠願寺)를 들 수 있다. 사천왕사의 대를 잇는 밀교사찰(신인종)로 12지신과 팔부중등을 조각하여 탑조각의 시원(始原)이 되기도 한다. 9세기를 넘어서게 되면 신라는 선종의 도입으로 인하여 심산계곡이나 경주와 격리된 지역으로 가람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가람의 배치도 지난 세기의 2탑식의 배치가 단탑식 또는 무탑식의 배치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선종 중심의 가람중에서 9산선문중에 대표적 가람이라 할 수 있는 보림사와 실상사는 조영시기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탑식가람의 배치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선종에서는 기본적으로 탑과 불상을 조성함에 있어 그 중요도가 현저히 적다는 점과 주로 경주지방의 호국적 가람에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2탑식가람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2탑식가람의 조성개념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림사와 실상사에서 철제비로자나불을 함께 조성하였다는 것은 2탑식가람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3. 일본의 2탑식가람과 당초제사

(1) 약사사 이후의 2탑식가람

689년 천무천왕의 장례식에 견신라승(遣新羅僧)인 명충(明聰)과 관지(觀智) 두 사람은 신라의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을 한다. 이 귀국승들은 이전에 귀국한 관상

정치구도 또한 전체집권적 국가에서 호족의 권력이 커지는 지방분권적 형태로 변화하고 불교도 개인적 수행이 중심되는 선종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중앙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귀족중심에서 호족과 민중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백봉(白鳳-하쿠호)시대			천평(天平-텐표우)시대			
약사사(藥師寺)	대관대사(大官大寺) ▶ 대안사(大安寺)	홍복사(興福寺)	원흥사(元興寺)	동대사(東大寺)	당초제사(唐招提寺)	

표8. 나라(奈良)시대의 가람배치

과 영관, 지음 등과 함께 약사사 건립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의 2탑식가람의 효시⁴⁷⁾가 되는 약사사는 천무천황의 황후인 지통황후가 발병했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원을 하였고, 밀교적 교원으로 황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사불을 봉안하게 된다. 그러나 천무천황은 약사사가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천황인 지통천황(持統天皇-지도우천황)에 의해서 완공된다. 약사사의 건립은 일본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관계속에서의 신라와 일본과의 우호속에 신라로부터 유입된 주된 경전인 인왕경과 금강명경은 밀교의 대표적 경전으로 신라에서는 이미 원효등 많은 고승들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경전들이고 또한 약사사의 발원의 원인이 치병(治病)이었으며, 치병의 최고 밀교승이 신라인인 혜통이라는 점, 그리고 신라의 최초의 2탑식가람인 사천왕사가 신라밀교 신인종의 명랑에 의해서 발원되었다는 점은 약사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의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약사사가 719년 평성경(平城京-헤이조쿄)로 옮겨 지어지기 이전 평성경에 지어진 또 다른 2탑식가람은 홍복사(興福寺;山階寺, 710년)와 대안사(大安寺, 大官大寺;716移建), 원흥사(元興寺, 飛鳥

寺;718)⁴⁸⁾로 이 세가람은 탑은 2기를 배치하지만 금당원안에 탑이 존재하지 않고 금당 밖의 또 다른 영역으로서의 탑이 존재한다. 이것은 일본이 받아들이는 문화의 교류로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 8세기가 되면서 이러한 친 신라계의 가람의 모습은 후에 대불양식의 대표적 가람인 동대사(東大寺)의 건립으로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2) 동대사와 당초제사, 그리고 헤이안

성무천황(聖武天皇-쇼우무천황)은 745년 동대사의 건립을 시작하였는데, 동대사는 국가의 태평무사와 번영을 위해 삼보(三寶)에게 기원하기 위한 대가람으로 이 가람의 특징은 2개의 탑이 따로 탑원으로서 영역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가람을 지을때의 가장 관련이 깊은 승려로 행기(行基)와 동대사 초대 별당인 양변(良辨)을 들 수 있다. 행기와 양변은 백제계의 대표적 승려였고, 또 동대사와 대불을 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우사하찌만과 주조에 필요한 구리를 제공한 사람들이 신라계의 이주민의 후예란 사실, 또한 대불을 완성시킨 쿠니나카노키마로와 대불을 도금하는데 필요한 황금을 헌납한 사람들도 백제계의 이주민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은 동대사의 창건은 한반도의 불교전래에 따른 가장 영향력을 미친 가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이후의 정치적 사항을 고려한다면 753년 신라 경

47) 일반적으로 일본의 2탑식가람의 효시는 본약사사라 한다. 하지만 佐々本 昌孝는 그의 논문「木造塔の研究 古代の双塔式伽藍-早稻田大學 修士論文, 2000」에서 백봉(白鳳)시대 초기에 하내(河内)에 선정사(善正寺), 지식사(知識寺)등 여러 쌍탑가람이 있었다고 하나 확실한 조영시기를 알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인 쌍탑가람의 시작은 천무천황의 약사사로부터 라고 설명하고 있다.

48) 中川 武,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東京堂出版, 1990
49) 타무라엔쵸(田村圓澄), 노성환 譯, 고대한국과 일본불교,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p. 234~242

덕왕12년(日本 孝謙天皇5年)에 일본사신에 의한 무례로 양국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고 779년인 혜공왕15(日本 光仁天皇10年)년에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8세기 후반의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외교의 방향을 신라일변도에서 중국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했고 이에 당나라에 파견하지 못했던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하게 되었으며 또한 입당구법승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⁵⁰⁾ 이러한 모습은 바로 가람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당초제사(唐招提寺)는 759년에 세워지는데 당나라승인 감진(鑑眞)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미 신라와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생긴 가람이다. 이 가람은 탑이 금당내의 영역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다른 영역을 구성하는데 마치 신라의 고선사지나 혹은 간월사지와 같이 금당과는 매우 동떨어진 위치에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람의 구성은 당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원락식 사원의 영향으로 보인다. 신라는 이 시기에 2탑식 사원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불국사를 조영하였다. 일본이 평안경(平安京-헤이안)시대⁵¹⁾에 접어드는 8세기 후반에는 일본은 중국밀교의 영향으로 인한 천태종과 진언종의 영향으로 연역사(延曆寺)와 금강봉사(金剛峯寺)⁵²⁾가 밀교승 최징(最澄)과 공해(空海)에 의해 지어지게 된다. 밀교의 영향은 산중가람의 조영, 다보탑의 출현, 예당의 설치라는 건축적 특징을 남게 된다. 신라의 밀교도 중국에서 공부한 입당구법승에 의해 전파되듯이 일본 또한 당나라의 밀교를 전수받는데, 세 나라의 밀교적 특징의 공통점은 비로자나불의 주불행위⁵³⁾와 십일면관음보살과

같은 비보보살의 예불행위, 그리고 보탑과 같은 다보탑을 짓고, 다라니와 결인을 하는 밀교적 수법 등이 삼국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4. 동아시아 2탑식가람의 특성

4-1. 2탑식가람의 조영사상

(1) 법화경의 이불병좌(二佛併坐) 사상

일반적으로 2탑식가람의 생성원인으로 『법화경(法華經·妙法蓮華經)』의 제11의 견보탑품(見寶塔品)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설법중에 탑의 생성과 함께 밀교부처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가람의 배치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그 당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사상에 대한 적용을 말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靈鷲山)에서 대중앞에 묘법연화경을 설(設)할 때 다보탑(多寶塔)이 석가모니 앞에 나타난 후에 다보여래(多寶如來)가 나타나 석가모니의 설법에 대하여 칭송하면서 보배탑의 자리중 반을 내어주며 석가모니와 같이 다보탑에서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였는데, 이때 석가모니가神通력으로 대중과 함께 허공에 있게 된다.⁵⁴⁾ 이러한 견보탑품에 나타난 내용은 탑의 존재성과 함께 탑속에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공존하여 2부분으로 나뉘었다는 사실, 두 여래가 만나서 모든 대중에게 행했다는 사실 등은 중국의 동진시대에 2탑식가람의 생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동진시대⁵⁵⁾의 고승 구마라집⁵⁶⁾에 의하여 번역된 『묘법연화경』은 장안에서 번역되어 그 시대 최고의 경전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그의 사후 제자들에 의해서 강남지방으로 전파되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법화경은 조탑(造塔)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흔적은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동진의 창락사와 장간사의 2탑식가람의 표현⁵⁷⁾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동진시기

50) 洪淳稔, 新羅と飛鳥・白鳳の佛教文化 - 七・八世紀における新羅と日本との關係, 吉川弘文館, 1975, p. 287~288

51) 794~1192년, 간부왕(桓武王)이 헤이안쿄[平安京:京都]로 천도한 때부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가 가마쿠라에 바쿠후(幕府)를 개설한 약 400년 동안의 일본 정권.

52) 금강봉사역시 2탑식가람으로 금당 동서에 다보탑이 건립되었다. 밀교승인 공해와 최징은 가야산에서 각각 다보탑을 건립하여 쌍탑(태장계와 금강계만다라를 상징)을 조성하였다. 佐々本 昌孝, 木造塔の研究 古代の双塔式伽藍, 早稻田大學 修士論文, 2000, pp. 162~174

53) 실질적인 비로자나불의 예불행위는 화엄종의 유입과 잡밀의 유입시기에도 나타난다. 예로 동대사를 들 수 있다.

54) 李民樹, 『新譯 法華經』, 홍신문화사, 1990, p.p. 224~239

55) 東晉(동진)시대 : 317년 - 420년

56)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344~413 또는 350~409) : 중국 역경사상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장식했고 중국 불교를 성장발전 하게 하는 하나의 분기점을 만든 고승이다.

57) 山本榮吾, 双塔式伽藍配置の発祥と伝播 - 日本宗教建築史の基礎問題 - 3-, 建築史研究 no.40, 建築史研究会, 彰国社,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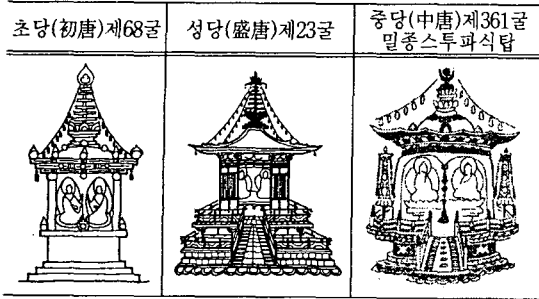


표9. 돈황석굴에 표현된 이불병좌(二佛併坐)

에 유행하던 법화경은 북위에 영향을 주어 돈황의 석굴에 이불병좌의 탑그림(표9)이 나타나고, 운강석굴에도 불상 좌우에 2기의 탑이 배치되어 있거나 탑조각중에 불상이 나란히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이불병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⁵⁸⁾ 운강의 북위시대, 돈황의 당대(唐代)에 표현된 법화경의 묘사는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어 2탑식가람의 배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통일신라에서의 대표적인 법화경의 보탑품의 묘사는 불국사의 대웅전 앞에 위치하는 삼층석탑과 다보탑이다. 다른 2탑식가람의 조성개념은 불국사처럼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감은사의 경우 동탑사리함에서 또 다른 보탑품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서탑의 사리장엄과 동탑의 사리장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동합이 사천왕의 호위 속에 있는 극락 즉 밀교적 극락세계를 묘사한 반면에 서합은 주악과 같은 동자와 같이 화려한 극락을 묘사하였다. 또한 기단부에서도 동합은 사천왕과 승상들의 배치가 만다라적 도상배치를 하였으나 서합의 경우는 각 모서리에 치우치는 주악을 조각함으로써 그 배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난간상세를 보면 동합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비(門扉)를 두고 있어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서합에는 문비가 없어 출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 그리고 사자상의 유무도 또한 중요한데 서합의 경우 기단부의 모서리에 사자상이 없지만 동합의 경우 사자상을 두어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⁹⁾(표10) 두 사리함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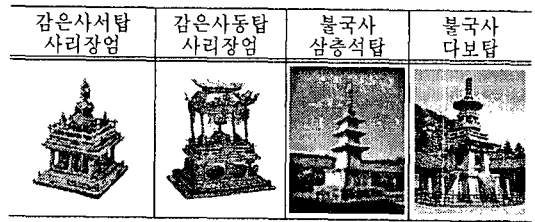


표10. 감은사와 불국사에 표현된 법화경 보탑품

통적 특징은 외함에서 모두 사천왕으로서 외부를 보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은사의 조영적 교리가 법화경에서의 보탑품에 나오는 석가모니와 다보여래와의 관계와의 연관성으로 인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건축학자들은 중국의 법화경의 영향으로 2탑식가람의 조영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2탑식가람에 사리함을 한쪽의 탑에 조성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다보탑의 조영으로도 법화경에 의한 2탑식가람의 적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보탑의 경우 9세기가 넘어 입당구법승 중 밀교계 승려들에 의해서 조성된다. 그중 일본 천태종을 개종(開宗)한 최징(最澄)은 6개의 다보탑을 조성하여 그 안에 여러권의 법화경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그 적용을 볼 수 있다.⁶⁰⁾

(2) 호국사찰에 의한 밀교사상

중국 밀교의 흔적은 동진시대 백시리밀다라(帛尸梨蜜多羅)가 『대관정신주경(大灌頂神呪經)』을 번역하고 주술을 잘하였고 유행을 시켰다는 기록과 담무난(曇無蘭) 또한 381년 주술과 관련된 신주(神呪)를 번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북위 문성제때 담요(曇曜)는 운강석굴의 하나인 통락사에서 『대길의신주경(大吉義神呪經)』 4경을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결계법(結界法)이나 기우(祈雨)등의 성취법이 실해지고 있다. 그 이후 양대(梁代)에는 인계(印契)와 호마법(護摩法) 등이 전해졌다.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지통(智通), 아지구다(阿地瞿多), 유송(劉宋), 불타파리(佛陀波利) 등은 인도로부터 진언다라니 등을 번역하여 민간에 두루 퍼지게 하였다.⁶¹⁾ 지금까지의 밀교

, pp. 16~18

58) 3-1절의 (3)남북조와 수, 당의 2탑식가람을 참조

59) 김봉건 외,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

화재연구소, 2000

60) 佐々本 昌孝, 앞의 논문, pp. 162~174

승들이 잡밀의 승들이다. 여기서 밀교승들이 거처한 가람들은 거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주술에 따른 결인법과 호마법, 다라니를 외우는 진언의 등장에 주의를 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밀교계 고승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밀교에서 말하는 순밀 즉 경전을 통하여 체계화된 교학을 바탕으로 하나의 종파를 만들게 되는 시기는 8세기 초반으로 선무외(善無畏)와 금강지(金剛智)에 의해서 집대성된다. 인도승인 이들은 인도에서의 힌두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밀교적 수행방법과 교리들을 중국으로 가져와 경전을 번역하고 제자를 양성하여 당과 신라, 일본에 밀교(순밀)를 포교하였다. 이들이 거처한 가람으로는 선무외의 장안 흥복사, 서명사, 보제원 등이 있고, 금강지는 낙양 광복사와 연관이 있다. 금강지의 제자 불공삼장은 가장 많은 밀교경전을 해석하였고 746년에는 당 현종은 그를 홍노사에 주하게하고 자신 스스로 관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다음대인 숙종 때에는 도장호마(道場護摩)를 벌여 황제에게 관정(灌頂)을 했으며 다음 왕인 대종대에는 불공을 황제의 스승으로 임하였다. 당나라 최고 전성시기의 3대에 걸친 불공의 밀교는 최고 전성기를 구사하게 된다. 불공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당, 신라의 제자가 많은데 당의 혜과(惠果), 신라의 혜초(慧超) 등이 유명하다. 혜과는 태장계의 선무외의 업을 이어받은 신라승 현초의 제자이면서 금강계의 금강지의 제자인 불공의 제자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청룡사의 주지로 태장계와 금강계의 두 밀교사상을 접목시킨 호지(護持)승 이고, 혜초는 신라승으로 733년 금강지의 전법제자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저술한 밀교승이었다. 선무외와 금강지로 시작되는 순밀은 당과 신라, 일본에 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신라의 신인종과 총지종, 일본의 진언종과 천태종의 모태가 되었으며, 티벳으로도 영향을 주어 후에 티벳밀교라고 하는 라마교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신라의 경우는 당과 일본의 경우보다 더욱 밀교의 전법자로서 그 이름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신라가 일본보다도 더욱 밀교를 전수받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²⁾ 그러나 신라출신의 전법자들이 신라로의 귀국이 거의 드문 일이었지만 일본의 경우 공해와 최징의 경우와 같이 중국에서 수행한 밀교를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 헤이안시대의 최대 교파로서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왔다.

밀교사상이 2탑식가람과의 그 관계는 중국의 경우 동진시대 그 밀교개념이 성립되어 발전하였다는 것과 고대의 가람의 현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인 석굴의 그림과 조각 중에 담요와 같은 밀교승의 관련이 매우 높은 운강석굴에 유난히 2탑 구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황석굴에 나타난 그림(표10참조, 중당 제361굴)인 밀종계 스투파식의 탑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불병좌의 모습과 밀교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최초의 2탑식가람인 사천왕사가 초기의 밀교승인 명랑이 구축⁶³⁾하였고, 이어서 망덕사와 원원사 등 2탑식가람이 밀교가람인 점, 2탑식가람중 많은 수의 가람이 호국사찰이었고 그 호국사찰의 기본은 밀교사상이었다는 것과 밀교고승과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 등으로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신라의 사천왕사를 비롯한 2탑식가람의 영향으로 약사사를 비롯한 백봉(하쿠호)시대의 2탑식가람을 조영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신라의 밀교가람이 일본의 호국사찰의 건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세기의 일본의 대표적 고승이면서 밀교승인 공해(空海)와 최징(最澄)은 중국에서 귀국하여 바로 밀교가람의 조영에 몰두하였는데, 그러한 가람을 구성함에 있어 양계만다라 즉 태장계와 금강계의

62)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1994, pp. 68~81
63) 사천왕사는 동진시대(317~420) 인도승인 백시리밀다라(帛尸梨蜜多羅)가 해석한 『불설관정불마봉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서 第7經의 문두루에 대한 의미와 작법을 적용한 가람이다. 수법의 내용은 第1段 : 오방신단(五方神段)에서 신인(神印)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장애를 제거, 제2단 : 칠신단에서 수행자와 도량을 정화, 제3단 : 사천왕단에서 도량을 결인하며, 제4단 : 칠불단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정법의 도로 들어간다. 사천왕사의 문두루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공격하여 물리치는 성격이므로 제1단의 오방신으로 하여금 적을 퇴치하고 제3단의 사천왕단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문두루법을 시행하였을 것이다

61) 鎌田茂雄, 정순일 譯, 中國佛敎史, 경서원, 1996, p. 219~223

양부를 형상화한 2기의 다보탑을 조성하는데에 힘을 모았다는 사실⁶⁴⁾은 밀교와 2탑식가람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다.

4-2. 동아시아 2탑식가람의 전개 특성

문헌에 의해서 밝혀진 동진에서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2탑식가람의 배치형식은 동진의 다음 시기인 북위시기에는 운강의 예에서처럼 탑 2기가 묘사되는 조각을 보여줌으로 그 구성의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였고, 당대에 이르러서도 문헌상에 의한 동탑원과 서탑원의 언급을 통한 2탑식가람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람형식에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2탑식가람의 최초의 언급이 된 당대(唐代) 835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장언원(張彦遠)의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의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역대명화기에는 창락사외에 여러 2탑식가람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아야 할 사항은 2탑식을 표현함에 있어 창락사의 경우 “동탑(東塔), 서탑(西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당대에 건립된 천복사, 흥당사, 보응사에는 그 표현이 “동탑원(東塔院), 서탑원(西塔院)”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같은 탑형식의 현상을 굳이 탑(塔)과 탑원(塔院)이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은 탑을 배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창락사의 2탑이 동시에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같은 원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창락사의 2탑이 같은 원(院)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탑원을 구성하였다면, 실제적인 원내(院內)구성의 최초의 사례는 신라의 사천왕사가 되는 것이다. 이는 2탑식가람의 신라와 일본의 영향은 중국에서 받았다고 하는 일련의 통설과 다른 사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역시 무리가 따른다. 선진화된 중국의 불교문화의 영향과 교류 없이 신라의 단독적인 2탑식가람배치의 생성은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한 원외(院外)에 있더라도 이미 2탑식 구성의 모습이 보였고, 운강

에서와 같이 불상앞에 2기의 탑이 조각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단독생성의 주장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의 중점은 신라의 2탑식가람의 구성이 중국에서 이미 실험되었고, 어느 정도 그 현상이 나타났던 2기의 탑구성이 신라에서는 호국적 사상(법화사상과 밀교사상)으로 인하여 신라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은 통일신라의 가람배치의 기본형이 되어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당대(唐代)이전의 문헌과 현재 나타나 있는 유구 및 가람에서 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2탑의 배치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당대(唐代)이후의 오대에 이르러서 나타나다는 점과 중국에서의 2탑식의 배치는 원내(院內)에 있지 않고 원 바깥에 새로운 탑원(塔院)을 구성하여 배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곧 중국의 2탑과 신라의 2탑 구성은 다르다는 점이다.

신라의 2탑식가람의 조성배경에 불교의 영향 이외의 다른 배경이 있다. 그것은 외교적 관계로, 본 논문의 2장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7세기 중엽은 신라의 한반도 통일과 당(唐)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모든 국력이 전쟁에 귀결되었고 불교 또한 그 목표에 의하여 호국적 불교가 발전하게 된다. 외교사를 보자 당과의 전쟁은 신라의 독자노선을 취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668년 이후 700년 초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신라가 당에 견당사(遣唐使)를 거의 보내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당의 견신라사(遣新羅使)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법승 또한 위의 30년 동안 3~4명 정도의 입당 구법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법승이 견당사와 같이 중국으로 갔다는 이유겠지만 그 당시 육로로 갈 수 있었던 구법승이 굳이 중국으로 구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국교단절에서 오는 결과인 것이다. 668에서 700년 초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신라의 2탑식가람이 탄생하여 신라가람의 정형을 이루어가던 시기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라가 당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가람의 배치와 연관이 되어, 당에서 유행되지 않

64) 佐々本 昌孝, 앞의 논문, pp. 162~174

은 2탑식가람을 채택하였고, 또한 2탑식가람이 유행하게 되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700년 이후 성덕왕대에 당과의 외교관계는 회복되고 견당사와 입당구법승들의 출국이 많게 되지만, 2탑식가람의 창건은 더욱 성행하여 신라는 2탑식가람의 왕국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신라의 독자노선은 일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신라가 당에 대한 전쟁에 승리하게 되자 일본은 곧바로 신라와의 독자외교노선을 걷게된다. 그 모습은 2장에서 견신라사와 신라학문승의 표(표1, 표2)를 보면 알 수 있다. 668년경의 일본은 천무천왕이 집권하던 시기이다. 천무천왕이 친신라정책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과의 모든 외교는 단절하고 오로지 신라와의 외교관계만 성립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점인 것이다. 학문승 또한 앞의 30년간의 기간에서도 오로지 신라와의 학문승 교류를 하고 있다. 단지 3명의 견당승이 귀국을 하고 있다.⁶⁵⁾ 이러한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700년초 신라의 당과의 외교회복으로 인하여 일본 또한 당과 외교회복을 하게 된다. 신라와의 친밀외교는 720년을 기점으로 두 나라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신라는 당과, 일본은 당과 발해에 대한 외교로 발전하게 된다. 가람의 건립에 있어서도 신라와의 외교가 발전한 시기인 백봉시대에서는 신라의 2탑식가람형식인 원내의 2탑식가람의 형식이지만 7세기 초반의 천평시대의 원외의 2탑식가람과 당승(唐僧) 감진(鑑眞)에 의한 당초제사(唐招提寺)의 건립에 따른 원락식 배치의 가람의 영향은 일본의 새로운 가람배치의 발전을 보이게 된다. 이후 공해와 최정으로 이루어지는 헤이안시대의 밀교는 2개의 다보탑을 조성함으로 양대만다라를 형상화하였고 불전 또한 만다라를 봉인하기 위한 평면⁶⁶⁾으로 변화된다.(표11)

동아시아 3국의 2탑식가람의 전개의 흐름(표12)은 중국에서 그 개념적 사상의 표현되었고, 중국에서의 2탑식가람은 원외의 탑원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락식배치의 기원은 초기의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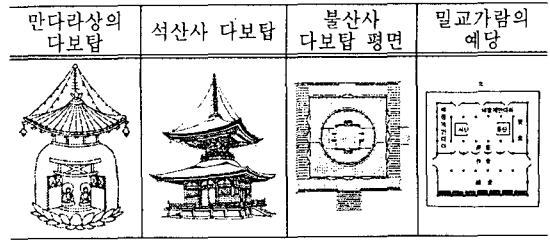


표11. 헤이안시대 밀교의 다보탑과 불전평면

에 있어 탑원과 승원의 분리에 의한 가람배치⁶⁷⁾와 중국의 사함원에서 출발한 원락개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라의 2탑식가람은 중국의 원외(院外)의 2탑식가람의 표현과 다르게 원내(院內)에서의 2탑구성의 배치를 보이고 있고, 그 배치의 원류는 동진시대의 2탑식가람과 운강석굴의 2탑의 조각을 들 수 있다. 즉 신라의 2탑식가람배치는 중국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는 있지만 가람의 주된 배치로서의 활용은 신라에서 적용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람조영의 배경은 그 당시 국제교류 속에서의 신라의 독자성과 연관이 있다. 일본의 2탑식가람은 초기에 신라와의 외교적 관계에 의한 원내(院內)의 2탑식가람의 형태의 도입으로 발전하였다가, 당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외(院外)의 탑원방식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당의 원락식(院落式) 가람의 영향은 당초제사로 나타난다.

V. 결론

7·8세기의 동아시아 가람의 특징은 중국의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세와 불교 교학의 발전 및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난다. 670년 나·당전쟁 이후 신라는 당과 외교적 단절을 하게 되고, 불교의 교류 또한 단절하게 된다. 신라의 승리에 기인한 결과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적 친밀성을 가져오고 일본 역시 당과의 외교와 불교교류를 단절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는 700년 초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지속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2탑식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대한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65) 이들은 이미 653년에 출국한 견당학문승(遣唐學文僧)이다.

66) 교왕호국사(敎王護國寺) 관정원(灌頂院)

67) 박언근,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 pp. 84~86

	당(唐 : 중국)		신라(新羅 : 한반도)		일본(日本 : 倭)	
	1탑식, 원각식	2탑식 원외 2탑식	1탑식, 원각식	2탑식 원외 2탑식	1탑식, 원각식	2탑식 원외 2탑식
400 ⋮ 670	 수대 제423굴동정 티백관전각복사	 대흥17굴 동흥15굴	 동원리사지(고구려)왕오리사지 대흥사지(백제) 동흥사지(신라)		 비주사 시조왕사 진동사	
80	 조위 제209굴북벽 아미타관전각복사	진복사 서탑축 동합문	 동경사 부록사	 시조왕사지 간운사지	 진동사 민원사	
90		보은사 서탑축		 왕역사지		 망사사
700	 영양 제225굴북벽 아미타관전각복사					 망사사 상인회사 대곡단사
10						 종북사 대인사
20				 정군리사지		 민흥사 대인사
30	 영양 제361굴북벽 아미타관전각복사					 우포리복사
40				 고선사지 동흥사지(고구려) 불국사	 동대사	
50					 양초원사	
60						
70						
80	 남연사		 남연사	 남연사지		
90						
800 ⋮	 불광사		 해안사 남이사	 심양사 부림사		 연희사 근정중앙 공경봉사 근정대당

표12. 동아시아 2탑식가람의 전개도

1. 나·당전쟁 이후 전쟁이후 신라와 당의 외교적 관계가 단절되자 불교의 교류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이 시기에 신라에서 나타난 가람의 배치가 2탑식가람배치이다. 이 시기에 일본 역시 2탑식가람의 배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당시 당에서 나타난 가람배치는 불전이 중심이 되는 원락식배치이다.

2. 중국에서의 2탑식가람의 시원은 동진의 창락사이다. 중국문헌에 나타나는 2탑식가람의 모습은 탑(塔)과 탑원(塔院)의 분리가 나타나며, 당대의 2탑식가람은 원외(院外)의 2탑식가람으로 원락식배치이다. 원락식배치의 기원은 초기불교에 있어 인도의 탑원과 승원의 분리에 의한 가람배치와 중국의 사함원에서 출발한 원락개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3. 7세기 말 신라의 2탑식가람은 중국의 동진시대의 창락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당전쟁이후 중국의 문화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신라의 가람의 특성은 당으로부터의 독자적 행보로 인한 원내(院內)의 2탑식가람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백봉시대에 영향을 주어 일본의 2탑식가람의 창건의 모형이 된다.

4. 8세기 중엽 2탑식가람의 구성은 중국의 영향으로 원락식 구성과 원내(院內)의 2탑식가람이 결합하여 신라와 일본에 원외(院外)의 2탑식가람배치가 나타나게 된다.

5. 2탑식가람의 개념적 사상은 이불병좌(二佛併坐) 즉 법화경의 보탑품에 나타난 사상적 재현과 호국적 사상의 배경이 되는 밀교의 사상이 도상으로 나타난 결과의 표현이다.

<참고문헌>

1. 圓仁, 김문경譯,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중심, 2001
2. 최재석, 古代韓日關係와 日本書紀, 일지사, 2001
3.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4.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
5.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문운당, 1997
6. 김영환, 한국불교사, 경서원, 1997
7. 田村圓澄, 노성환 譯, 고대한국과 일본불교,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8. 黃卓越 等, 中國佛教大觀, 哈爾濱出版社, 1995
9. 黃有福, 陳景富, 韓-中佛教文化交流史, 도서출판 까지, 1995
10.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1994
11. 太田博太郎·박언곤 譯, 일본건축사, 발인, 1994
12. 楊銜之, 洛陽伽藍記, 上海古籍出版社, 1993
13. 中川 武,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東京堂出版, 1990
14. 張彥遠, 長廣敏雄 譯, 歷代名畫記1, 동양문고 311, 평범사, 1989
15. 石田瑞麿 이영자 譯, 日本佛教史, 민족사, 1988
16. 蕭默, 敦煌建築研究, 文物出版社, 1989
17. 中國建築史編輯委員會, 田中 淡 譯, 中國建築の歷史, 平凡社, 1981
18.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0
19. 田村圓澄 외, 新羅と飛鳥・白鳳の佛教文化, 吉川弘文館, 1975
20. 노상천, 新羅 中代 雙塔의 造成背景에 대한 考察, 경주대 문화재학 석론, 2000
21. 佐々本 昌孝, 木造塔の研究 古代の双塔式伽藍, 早稻田大學 修士論文, 2000
22. 서영교, 羅唐戰爭史研究, 동국대 사학(史學) 박론, 2000
23. 정필심, 통일신라시대 사찰배치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론, 2000
24. 여성구, 신라 중대의 입당구법승 연구, 국민대 국사학 박론, 1997,
25. 권덕영, 新羅遣唐使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 박론, 1995
26. 김상언, 韓國 古代伽藍의 配置에 關한 研究, 고려대 석론, 1991
27. 한정희, 韓國 古代 雙塔의 研究, 홍익대 미술사 석론, 1981
28. 山本榮吾, 双塔式伽藍配置の發祥と伝播 -日本宗教建築史の基礎問題・3-, 建築史研究 no.40, 建築史研究會, 彰國社, 1976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uddhist Temple having two pagodas in 7-8th centuries

Kim, Sang Tae

(Graduate Student, Hongik University)

Park, Eon Kon

(Professor,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work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Buddhist Temple with two pagodas in the Eastern Asia in 7-8th centuries. This study was motivated from the observation that why there are many the Buddhist Temple having two pagodas only around the late 7th century, roughly around 670 A.D.. This period corresponds to the Silla Dynasty(in Korean History) and Hakuho Period(in Japan History) among the Eastern Asia while the composition of the temple being changed as Buddhism spreads out from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The appearance of the Buddhist Temple having two pagodas was resulted from the representation of the ideology in Botabpum(dogma of pagoda security)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at is to say, two Buddhas sit side by side and iconography of Esoteric Buddhism dogma supports the spirit for defending one's country. Buddhist Temple having two pagodas in China had separate tab-won(areas with pagodas outer temple building block). Buddhist Temple having two pagodas in Korea had begun with sacheunwangsa temple in Unified-Silla. But it had two pagodas with inner temple area instead of outer. This was different from the composition of China. It can be related to the layout of the temple having two pagodas in East-Jin(in China History) and the sculpture of two pagodas in Ungang-stonecave(in China). Thus the layout of the Buddhist Temple having two pagodas in Silla had been originated from that of China, but was developed to the main temple layout on her own accord. As Japanese Temple having two pagodas had been influenced diplomatically, it had two pagodas inner area as like the layout in Shilla. But later under the influence of Tang it was modified to the layout having them in separate area. And this influence can be seen for example Tangchojaesa temple. For the more, We call see that the diplomatic trends according to the policies in East asia affected to Buddhism and then naturally also to the layout of the Buddhist Temple.

keywords : the Buddhist Temple with two pagodas in the Eastern Asia in 7-8th centuries,
Botabpum(dogma of pagoda security)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Esoteric Buddhism
